

109 학년도 첫 학기 유라시아 재단 국제 세미나  
"아시아 공동체 : 동아시아 연구의 구축과 변화" 강의 시리즈 (7)  
주제 : 아시아 한자 어휘 습득

진육민(陳毓敏) 교수  
(중국문화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제 7 회 유라시아 재단 국제 강연에서는 본교 일어일문학과 진육민(陳毓敏) 교수를 초청하여 "아시아 한자 어휘 습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번 주제는 아시아 한자 어휘 습득, 특히 대만인이 일본어 한자를 어떻게 습득하는지 그 학습 방법에 초점을 두었다. 진 교수는 먼저 교사와 학생들에게 일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공유했고, 그가 연구 주제로 한자 어휘를 선택한 이유, 한자 어휘 비교 연구, 한자 어휘 습득연구, 마지막으로 한자 어휘 게임을 소개하며 교사와 학생들이 한자 어휘 습득 연구의 수수께끼와 재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강의를 마무리 했다.

우선, 진 교수는 본 대학 일본학과를 졸업한 뒤 직업고등학교에 일본어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습 현장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일본어 능력의 필요성을 느껴 일본 유학을 결심했다고 한다. 일본 거리의 한자 간판을 시작으로 중국어와 일본어 한자의 의미 차이가 있는 것을 보았고, 이것이 진 교수의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한다. 연구 주제를 구상할 때 발음뿐만 아니라 한자의 의미도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헌을 공부하며 한자 어휘 연구에는 "모양(形)", "소리(音)", "뜻(義)"의 세 가지 유형이 있음을 발견했으며 "뜻" 부분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먼저 문헌에서 이전의 중일 비교 연구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 (1) 구조 연구: 일본어의 수식 구조는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이지만 중국어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 오는 경우가 많다.
- (2) 역순 현상 연구 : 중국어와 일본어는 한자를 사용하지만 그 순서가 동일하지 않다.
- (3) 품사 연구: 중국어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이 엄격하지 않다. 그러나 일본어는 명사와 자동사로만 쓰인다. 중국어가 형용사이면 일본어는 자동사이고, 중국어의 자동사는 일본어에서 명사로 분류된다.
- (4) 분류 연구 : 1978 년 일본 문화청은 일어 사전과 중국어 사전에서 2,000 개의 단어를 비교 한 결과 "동의어"가 66.67 %, "유의어"와 "이의어(異義)"가 25 %, "누락어"가 25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에서 진 교수는 한자 어휘 습득 연구를 소개하며 대만인의 어휘 학습 방법을 발표했다. 대만 대학생 295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만인 어휘 습득은 크게 모국어 학습, 기억법, 사전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 시청, 만화, 관용구 기억 등) 등 네 가지로 나타났다. 제 2 언어 습득에 관해서는 "전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것은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학습의 전이를 의미한다. 세부 사항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 ①긍정적 전이 ②부정적 전이, ③실수를 두려워하여 일본어를 사용할 때의 회피, ④모국어의 습관으로 인한 과정 전이 ⑤문화로 인해 외국어 학습 중 전이되는 사회 문화적 전이, ⑥중국어 한자 이해로 인한 과도한 한자의 남용, ⑦개인 주관적인 심리적 전이이다.

횡단 연구 활용은 일정한 시기 동안 학습자들의 학습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며, 종단 연구 활용은 학습자의 장기간 학습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두 가지 연구방법을 토대로 아래의 결과를 도출했다. 먼저 「中日同形語語義分類(중일 동형어 의미분류)」를 통해 ①동의어 ②유의어 1 ③유의어 2 ④유의어 3 ⑤이의어 ⑥누락어(欠落語) 등으로 분류하고 유럽과 미국의 제 2 외국어 학습 난이도 계층이론을 활용하여 분리, 신규, 누락, 융합, 일치 등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중국어와 일본어 한자의 유의어는 123 개에 불과하지만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 빈도면에서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상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중일한자어를 동의어, 유의어 1(의미가 같고 사용빈도 일치하는 경우), 유의어 2(의미는 같으나 사용빈도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의어, 누락어 1(한자로 의미 추측이 가능한 경우), 누락어 2(한자로 의미 추측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여섯 종류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초하여 대만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① 어휘 지식: 모국어로 번역 ②어휘 사용: 문장 오류를 판별 등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일어초급학습자의 경우 두 가지 실험의 결과가 일치하였으며, 예측했던 난이도 계층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어 능력이 다른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1 급 학습자의 경우 난이도 계층이 보이지 않았으나 2~3 급 학습자들의 경우 난이도 계층이 1 급학습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학습환경이 다른 경우에 대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학습 장소에 따라 JFL(대만에서 학습한 학습자)과 JSL(일본에서 학습한 학습자)를 분류하여 실험을 한 결과 일본에서 학습한 학습자는 급수가 2 급임에도 난이도 계층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횡단 연구를 통해 일어 능력의 높고 낮음은 중한 어휘 판별의 오차에 영향을 주며, 학습자의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종단 연구는 대만 초급 학습자의 작문 내용을 분석하여, 한자 어휘의 종류를 중국어에 추가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중국어는 초급자의 경우 중국어를 일본어로 쓰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중고급 학습자의 작문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①한자 어휘의 오류는

일어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지 않으며 학습 년수에 따라 개선되며, ② 모든 종류의 한자 어휘는 오류를 발생시키며, ③ 중국어의 오용이 가장 높았으며, 고급 학습자라 하더라도 오류가 감소하지 않았다. ④ 동의어 오용의 원인은 중국어와 일본어의 품사가 다르거나 일본어가 있지만 다른 글자를 쓴 것 등이다. ⑤ 오용과 바른 사용이 공존해야 함을 알게 하였다.

이상을 결론으로 하고 강연을 마무리 하였다.

번역: 주희선(朱希鮮) 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부교수